

農産物 加工事業 國有化

—파키스탄, 中間商人 弄奸 배격위해—

調 査 部

製粉工場등 接受

파키스탄 정부는 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어온 중간 상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의 3大 농산물인 쌀, 면화 및 밀에 대한 모든 가공 사업을 전면 國有化하는 과감한 조치를 최근 단행했다.

줄피카르·알리·부토 파키스탄 首相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이들 주요 농산물에 대한 중간 상인들의 매점매석과 폭리행위, 가격조작, 투기등의 피해로부터 구제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쌀, 밀 및 원면 가공업에 대한 정부의 국유화 조치로 전국의 1천 4백 36개 정미소와 1백 22개의 제분공장, 그리고 6백 41개의 원면 처리공장들이 정부 소유로 넘어 갔는데 이들 공장들은 매년 약 14억달러 상당의 처리 능력을 보여 왔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앙 정부 지속하에 쌀 搗精공사가 설립 되었으며 이 搗精공사는 전국의 모든 정미소들을 관장, 국민들에게 쌀의 안정 공급업무에 착수 했다.

그러나 제분 공장들은 4개 지역으로 분할, 각 지역 제분공사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들 4개 지역은 펀잡신드 西北國境州 및 발루치스탄州의 발루치스탄 開發處등이다.

民間所有主엔 15年 분할 補償

그리고 각 제분공장에는 각 지역제분 공사의 관리들이 파견되어 품질 감독을 맡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들 모든 정미소와 제분소 및 원면 처리공장들의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업관리부라는 새로운 정부 기구도 신설했다.

정부의 이 국유화 조치는 이미 오래전 부터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농업개발을 위해서 그간 막대한 영농자금과 농기구등을 농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중간 상인들의 은갖 농간 때문에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밝히내고 농민들과 특히 정미·제분 및 원면 처리업 관계자들에게 중간 상인들을 철저히 배격하도록 누누이 촉구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촉구하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간 상인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는 급기야 국유화 조치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른 것이다.